

뷰티경제

발행일: 20

- 뉴스홈
- 경제
- 산업**
- 사회
- 문화
- 전국
- 오피니언
- 글로벌

기업 유통 제품

기업

그레뷰 회장 "중국소송, 동방신기 유명세 악용의도"

[인터뷰]강석원 회장 "3인, 소액 투자자일뿐 홍보대사 결코 아냐"

문용필 입력 2009.11.26 10:12 | 댓글 0

- 인
- 미
- 가

"중국 대리상이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동방신기 3인의 유명세를 업고 어떻게 해보자 하는 속셈일 뿐입니다"

최근 화장품 관련 뉴스보다는 연예뉴스를 통해 더 많이 흘러나오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다. 양태반 화장품 브랜드 '그레뷰'(Crebeau)가 그것.

지난 7월 동방신기 멤버 3인(시아준수, 매키유천, 영웅재중)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자 SM 측이 이번 분쟁의 핵심으로 이들 멤버들의 '화장품 사업'을 거론하면서 그레뷰는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들이 그레뷰 중국법인에 투자자로 나섰다. 또한 이들의 가족들은 국내에서 그레뷰의 매장을 운영중이다.

아울러 최근 그레뷰의 전 중국 대리상이었던 베이징구신세기문화전파유한공사(이하 베이징구신공사)가 동방신기 멤버 3인과 그레뷰에 대해 "약속한 화장품 홍보 활동을 진행하지 않아 약 100만 위안의 손해를 봤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그레뷰는 또다시 이슈의 한복판에 섰다. 이에 본보는 25일 강석원 그레뷰 회장과 인터뷰를 갖고 그의 입장을 들어봤다.

우선 강 회장은 동방신기 3인은 그레뷰의 중국법인에 투자한 것이지 한국법인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두 법인은 분리돼 있다고 한다. 또한 동방신기 3인도 1억원이 채 안되는 돈을 투자한 소액 투자자일 뿐 홍보대사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에 총 아홉 개의 대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구신공사 외)다른 대리상은 (동방신기 3인이) 홍보대사라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대리상들과 회의를 할 때 동방신기는 단지 투자자일 뿐이니 초상권과 성

많이 본 뉴스

- 1 설하수 신제품, 중국 시장 보강 필요
- 2 이강덕 경북 도지사 예비 후보, "경북도지사, 행..."
- 3 포항시장 선거에 공천 신청한 P 전 도의원, 국민...
- 4 브리티, 외국인 집중 매도·수익성 감소로 10일째 ...
- 5 마녀공장 투자자 허탈...'실적·주가 모두 부진'



최신뉴스

- [5]중국 클렌징폼 트렌드 급변...1년 새 절반
- [뷰홀 26]향기와 색채가 빛어낸 뷰티홀릭
- [4]티몰 크림시장, 중국 약진...글로벌 고전
- "仅靠K-Beauty的标签, 已经不再具备"
- 화장품 주가, V자 반등...에이피알 35만 원

전국뉴스

명권을 사용하지 말라고 인식시켜줬죠”

이어 강 회장은 “오히려 베이징신구공사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동방신기
기를 이용, 무리한 화장품 홍보에 나섰고 본사에서 이를 저지하자 소송을 건
것”이라며 “그런데 베이징신구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동방신기 3인의 유
명세를 업고 어떻게 해보자는 속셈밖에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강 회장은 “우리가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의 동의 없이 맘대로
동방신기 3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한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뿐더러 이들
에게 (홍보대사임명) 동의를 요구한 적도 없고 이들이 동의한 적도 없다”며 황
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베이징신구공사는) 회사가 도주했다고 하지만 사무실
은 단지 베이징 왕징으로 이전했을 뿐이고 다른 대리상들도 현재 영업중인 상
태”라며 “그런데 (베이징신구공사는) 폐쇄된 전 사무실을 찍어서 도주했다고
주장하더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동방신기 멤버 3인의 가족들이 국내에서 끄레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홍보효과를 노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일까. 동방신기 팬들에게 이
들 매장은 ‘끄레뷰 샵’(시아준수, 일산점), ‘끄레뷰 믹’(믹키유천, 강남점), ‘끄
레뷰 핏’(영웅재중, 잠실점)으로 알려지면서 입소문을 탄 바 있다.

이같은 물음에 강 회장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은 직업선택의 자유도 없느냐”
며 “모든 세상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유명 연예인의 가족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대답했다.

단지 동방신기 3인이 중국법인에 투자를 한 이후 이들의 가족들이 끄레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어 매장을 하나씩 운영하게 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끄레
뷰는 이들 매장을 포함해 국내에만 100여개의 총판이 있다고 한다.

이어 강 회장은 동방신기 3인이 끄레뷰와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다.

“제 아들이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동방신기 3인과) 형, 동생 사이로 친하
게 지냈습니다. 아들이 대학졸업 즈음부터 회사차원에서 일본과 중국에 꾸준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중국법인을 맡으라고 했고요. 그런데 지난 1월 6일

인천시,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
청년 취업 지원 확대



인천시, '유가 상승 대응' 주유
소 현장 점검



인천시교육청, '제8회 교육 공
공데이터 AI 활용대회' 개최



인천시교육청, AI 교육 190교
본격 추진



인천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
강 사업 추진



동방신기 3인이 휴식기를 가지면서 제 아들을 보러 중국에 왔고 마침 그날이 우리가 중국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설명회장에 나왔던 겁니다. 이때는 투자자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날 설명회가 비공개로 진행됐음에도 유명 한류스타인 동방신기 3인에게 관심이 쏟아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끄레뷰 측은 동방신기 3인과 간단한 기념촬영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 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이날 동방신기 3인이 먼저 끄레뷰 중국법인에 대한 투자의사를 밝혔다는 것. 이어 올 봄에 이들은 정식으로 멤버당 1억 이하의 금액을 투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동방신기 3인은) 때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중국시장이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본인의 미래를 위해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우리 브랜드는 ‘동방신기 화장품’이 아니라 ‘끄레뷰’”라고 강조했다.

한편, 끄레뷰는 중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한 베이징 신구공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용필** news@thebk.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 BEST댓글

물에 바나나 끓이다

바나나를 끓는 물
넣고 그 물을
마셔보세요. 일
일을 민지 못할

이것을 알고 좋다

매체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법인명: (주)데일리코스메틱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W동 907호(당산 SK V1 center) | 대표전화: 02-3143-1875 | 팩스: 02-3143-1925
제호: 뷰티경제 | 등록번호: 서울 아 00183 | 등록일: 2006-03-23 | 최초발행일: 2006-03-23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건희 | 발행·편집인: 한상익

Copyright by 뷰티경제 All rights reserved.

